

“속공저지 반칙 맨 자유투 부과 고려”

김영기 KBL 신입 총재 취임

“파울로 자르면 조던이 와도 재미 없어”
속공·기술 보는 재미…농구 부활 앞장

한국농구는 1980~1990년대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실업·대학농구의 인기는 1997년 남자프로농구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의 열기를 잊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KBL(한국농구연맹)은 1일 새 총재를 맞았다. 새 수장이 된 인물로 KBL 제3대 총재를 지낸 김영기(78) 총재다. KBL 출범의 주역이기도 한 그는 남자프로 농구 부활의 사명을 등에 지고 다시 총재의 자리에 올랐다.

●기술농구로 ‘재미’ 되찾겠다!

김영기 총재는 1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0년 전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경기를 관전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총재는 “레이커스에 매직 존슨이라는 유망주가 입단했다. 당시 레이커스는 센터 카림 압둘자바 중심이었다. 존슨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코치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압둘자바)에게 볼을 쥐’였다. 당시 NBA는 힘의 농구가 지배했던 때다. 존슨이라는 기술자를 두고도 재미없는 농구를 펼치는 시대였다. 지금 KBL 농구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부흥을 위해 ‘재미’라는 기본적 요소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프라임타임을 드라마가 아닌 스포츠가 차지한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재미가 있어야 농구를 찾는다. 나를 이 자리로 다시 부른 것은 농구 인기 부활을 해결하라는 뜻일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면 KBL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다.

●지금 상태로는 마이클 조던이 와도 재미없다!

김영기 총재는 제도 변화와 심판의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6월 펼쳐진 NBA 파이널을 예로 들었다. 김 총재는 “샌안토니오와 마이애미의 파이널을 봤는가. 경기가 멈추지 않고 진행됐다. 이는 세계농구의 추세다. 반면 KBL은 계속 심판 호각소리만 들린다. KBL은 출범 당시 NBA 경기규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같은 규칙인데 심판 풀이 다르니 경기내용이 달라졌

다”고 말했다. 동시에 룰 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총재는 “속공은 농구의 묘미다. 그런데 KBL은 속공하기 전에 파울로 자르는 것이 관례가 됐다. 이런 식으로는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가 와도 재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코트에서 일어나는 파울에 대해서 무조건 자유투를 주는 등 경기규칙 개정을 고려중”이라며 속공 증가를 통해 농구의 재미를 되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 김영기 KBL 총재가 1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미소 짓고 있다. 김 총재는 ‘재미’라는 기본적 요소를 강조했다. 뉴스시스



김효주

백규정

장하나

김세영

안신애

김하늘

10대·장타·인기 지존은 누구? 여자골프 라이벌전 뜨겁다

김효주-백규정, 10대 지존 타이틀 공방
장하나-김세영, 장타 앞세운 파워 경쟁
안신애-김하늘, 장외 인기 대결도 눈길

201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펼쳐지고 있는 라이벌 대결이 흥미롭다.

특히 올해는 김효주(19·롯데)와 백규정(19·CJ오쇼핑)의 10대 돌풍, 김세영(22·미래에셋)과 장하나(21·비씨카드)의 장타 대결, 안신애(24·해운대비치리조트)와 김하늘(26·비씨카드)의 인기 경쟁 등 색다른 라이벌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효주 vs 백규정 ‘10대 지존’

김효주와 백규정은 19세 동갑내기다. 중학교 시절부터 1인자를 놓고 경쟁해왔지만, 김효주가 늘 한발 앞섰다. 프로무대에 먼저 뛰어든 이도 김효주다. 2013년 데뷔했고, 2개월 만에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슈퍼루키’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신인왕도 차지했다. 김효주보다 1년 늦게 프로에 뛰어든 백규정은 기다렸다는 듯 반전에 성공했다. 단숨에 2승을 거머쥐며 김효주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김효주는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1년 6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백규정에게 빼앗긴 10대 지존 타이틀 탈환에 나섰다.

●장하나 vs 김세영 ‘장타 라이벌’

장하나와 김세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라이벌이다. 2013시즌은 장하나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둘 다 3승씩을 거뒀지만, 장하나가 상금왕과 대상 타이틀을 독식했다. 김세영은 공동 다승왕에 만족했다. 올해 활약은 비슷하다. 나란히 1승씩 챙겼다. 장나는 상금랭킹 2위(김세영 7위)와 평균타수 1위(김세영 3위)에 올라 있고, 김세영은 대상 포인트 2위(장하나 3위)와 톱10 피니시 1위(장하나 2위)로 자존심을 살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화끈한 장타 대결이다. 둘 모두 여자프로골퍼로는 드물게 파워 게임을 펼친다. 현재까지는 김세영이 1위

(271.2야드), 장하나가 3위(263.33야드)다.

●안신애 vs 김하늘 ‘인기 경쟁’

인기 대결도 뜨겁다. 안신애는 가장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짧은 치마에 아슬아슬한 패션은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인기 절정을 누리는 그녀는 대회마다 많은 남성팬들의 사인 공세에 시달릴 정도다. 안신애가 섹시함을 무기로 한다면 김하늘의 매력은 ‘살인미소’다. 김하늘은 KLPGA 투어 ‘삼촌부대’의 원조다. 2007년 데뷔하자마자 팬클럽이 생겼다. ‘하늘사랑’이라는 이름의 팬클럽은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최경주 상승세…13번째 마스터스 보인다

최근 6개월 만에 세계랭킹 68위 올라
50위대 진입·출전권 확보 ‘시간문제’

남자골프의 간판스타 최경주(44·SK텔레콤·사진)가 세계랭킹을 66위까지 끌어올리며 2015년 마스터스 출전권에도 바짝 다가서고 있다.

최경주는 30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프로골프 세계랭킹에서 2,017점을 받아 지난주와 같은 66위를 유지했다. 올해 초 134위로 출발했던 최경주는 6개월 사이 무려 70위 가까이 순위를 끌어올렸다.

세계랭킹 50위 진입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주 발표된 랭킹을 기준으로 50위인 게리 우들랜드(미국·2,6339점)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 50위는 마스터스 출전권의 마지막 선이다. 연말까지 50위 이내로 끌어올리면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 세계랭킹뿐 아니라 각종 순위에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만 2차례 준우승을 기록한 최경주는 3년 만에 시즌 상금 100만달러(41위·159만달러)를 넘어 200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이 주

어지는 페덱스 랭킹 포인트에선 40위에 올라 있다.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30위)까지 진출해도 내년 마스터스에 초대받을 수 있다. 최경주는 2003년 이후 12회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 출전권을 보장받지는 못한 상태다. 플레이오프까지는 8개 대회가 남아 있다.

최경주는 3일부터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올하이더TPC에서 열리는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총상금 650만달러)에 출전해 세계랭킹 50위 진입을 위한 도전을 계속한다. 주영로 기자

한국 스포츠의 성지 ‘잘 가, 동대문운동장’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서 전시회

“공 구경을 하려고 십리만쯤 떨어져 있는 광희문 성 위에 모여서서 내려다보는 사람도 수백 명이었다. 활동사진에 나오는 야구나 보려고 나온 모양이다.”

“여선수 ‘캔스’ 양은 왼손잡이-여자가 왼잡이면 팔자가 세다느니 옳은 말인 게야! 무거운 영영이를 가지고도 달음질을 해야만 되니…”

이상은 1925년 11월 25일 미국여자야구단-서울팀 경기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 중 일부다. 당시에도 스포츠는 지금처럼 재밌는 구경거리로 기능했다. 반면 여성의 체육활동, 왼손잡이 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현재와 달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 ‘잘 가, 동대문운동장’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 ‘한국 스포츠의 성지 동대문운동장의 80년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사진제공 | 서울역사박물관

랐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경기가 열린 장소는 1925년 개장한 경성운동장이었다. 서울역사박물관 한진금(31) 학예사는 “구한말만 하더라도 ‘뽕박질은 중놈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에서 근대적 스포츠의 개념이 발전한 과정의 중심에 동대문운동장(경성운동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동대문운동장은 경성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됐다가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문패를 바꾸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1970년대 고교야구와 국가대항 축구경기의 열기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의 성지가 됐다.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도 이곳에서 열렸다. 1984년 잠실주경기장 개장 이후에는 동대문운동장으로 불리

며 아마추어의 산실로 기능했다. 박지성, 추신수, 류현진 등 스타들이 모두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꿈을 키웠다. 그러나 점차 쇠락의 길을 걷다가 2008년 완전히 철거되며 폐장했다.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자 체육계에선 한국 스포츠 유산의 손실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5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잘 가, 동대문운동장’을 통해 동대문운동장의 80여년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고(故) 최동원의 딸이 스민 유니폼, 아들 차범근의 경기 중계방송을 듣기 위해 차범근의 부친이 사용했던 라디오 등 귀한 자료들이 공개된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시절 활약한 손기정(마라톤), 서정권(복싱)을 비롯해 서울운동장 시절 고교야구를 뜨겁게 달군 박노준, 김진우 등도 각종 영상과 소장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V리그 2014~2015시즌 선수 등록 결과

프로배구 남녀 연봉 1위 유광우·여오현·양효진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한국배구연맹(KOVO)이 1일 2014~2015시즌 남녀부 선수등록 결과를 발표했다. 남자부는 7개 구단 104명의 선수가 등록했다. 삼성화재 14명, 현대캐피탈 16명, 대한항공 15명, 우리카드 14명, LG손해보험 17명, 러시엔게시 13명, 한국전력 15명이다. 평균연봉은 9690만원으로 2013~2014시즌 1억1440만원보다 줄었다. 여자부는 6개 구단 77명의 선수가 등록했다. GS칼텍스 14명, IBK기업은행 11명, KG C인삼공사 13명, 한국도로공사 13명, 현대건설 13명, 흥국생명 13명이다. 평균연봉은 7130만원. 2013~2014시즌 평균연봉 6500만원에 비해 올랐다. FA선수의 이적으로 몸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남자부 최고연봉은 삼성화재 유광우(사진)와 현대캐피탈 여오현이 차지했다. 유광우는 2014 FA선수로 원소속 팀과 3억5000만원에 사인했고, 여오현은 지난해 2억9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올라 최고액선수의 자존심을 살렸다. 삼성화재 박철우(3억원), 이강주(2억8000만원) LG손해보험 김요한(2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여자부는 현대건설 양효진이 2억5000만원으로 여전히 1위다. 2위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돌아온 IBK 김사니(2억2000만원), 3위는 IBK에서 도로공사로 이적한 이효희(2억원)다. GS에서 도로공사로 옮긴 정대영과 FA선수로 GS에 잔류한 한송이는 각각 1억8000만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2014~2015시즌 셀러리캡은 남자 21억원, 여자 12억원으로 지난시즌에 비해 각각 1억씩 늘었다.

한편 남자부 신경수, 이보규(이상 대한항공), 조민수, 류기현(이상 러시엔게시), 김진범(한국전력) 등 5명이 은퇴했다. 여자부는 신수민(IBK), 이보선, 전하늘(이상 KG C), 신다영(도로공사), 최양비(현대건설), 정민정, 조영은(이상 흥국생명) 등 7명이 은퇴했다. 군입대 선수는 신영석 안준찬(이상 우리카드) 조성철(LG손해보험) 김홍정(러시엔게시) 김강녕(삼성화재) 이상현(대한항공) 등 6명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KT와 공식후원사 협약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일 ㈜KT와 공식후원사 협약식을 했다. KT는 19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및 부산아시아대회를 비롯해 공식 통신사업자로서 활동해왔다. 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공식후원사로서 다양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고 5G 및 AI-IP 브로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기가 토피아(GiGa topia)를 구현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노박 조코비치, 워블던 남자단식 계속 8강 진출

노박 조코비치(27·세르비아·세계랭킹 2위)가 1일(한국시간) 영국 워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워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세계랭킹 17위 조 윌프리드 송가(29·프랑스)를 3-0(6-3 6-4 7-6)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조코비치는 이로써 2009년부터 6년 연속 워블던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코비치는 2011년 워블던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앤디 매레이(27·영국·세계랭킹 5위)도 세계랭킹 18위 케빈 앤더슨(28·남아공)을 3-0(6-4 6-3 7-6)으로 따돌리고 8강에 합류했다. 매레이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워블던 8강 진출을 일궈냈다.